

「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」 언론 보도 설명자료

8월 25일 뉴스1 등 4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누수 및 폐관 위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목포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.

1

보도 현황

연번	보도일시	언론사	보도제목	비고
1	2026. 8. 25. 08:03	뉴스1 (박태훈 기자)	박지원 "김대중 기념관 비 새 정말 부끄러워...방치하면 안 돼"	
2	2026. 8. 25. 11:04	뉴시스 (이지영 기자)	박지원 "김대중 기념관 비 사고 일부 폐쇄...방치하면 안 돼"	
3	2026. 8. 25. 18:48	전남매일 (김현수 기자)	박지원 의원 "비 새는 김대중 기념관 방치 안 돼"	
4	2026. 8. 25. 19:12	연합뉴스 (형민우 기자)	박지원 "김대중노벨상기념관, 폐관 일보 직전...관심 가져야"	

2

시설 현황

- (시 설 명) (재)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
- (위 치) 목포시 삼학로92번길 68
- (개 관 일) 2013. 6. 15.
- (규 모) 대지 14,559.6㎡, 연면적 4,677.36㎡(지상 2층)
- (주요시설) 전시동, 컨벤션동 등

① “비가 새고 일부 공간은 폐쇄돼 폐관 일보 직전”

“관장이 목포시와 특별시청을 찾아가 통사정했지만 예산 타령”

<사실관계>

- ⇒ 기존 누수 구간은 2026년 5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, 최근 발생한 누수는 우수관 노후에 따른 설비 누수로 외벽을 통한 빗물유입이 아니며 해당 누수는 2026년 하반기 보수 예정
- ⇒ 기사에서 언급한 ‘일부 공간 폐쇄’는 컨벤션동 대강당의 냉방시설 효율 저하에 따라 대관(여름철 7월~9월)을 중단한 것으로, 시설 안전 문제에 따른 폐쇄가 아님
- ⇒ 냉방시설은 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2026년 9월 중 보수 추진 예정임
※ 2026년 여름철^(6월~8월) 방문객 수 : 총 27,039명
- ➡ 전시동은 정상 운영 중이며, 국비 지원 특별전 「내면의 기록」도 정상 운영하고 있어 ‘폐관 일보 직전’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- ➡ 누수 및 냉방시설 보수계획과 재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, ‘예산 타령만 했다’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② “기념관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”

<사실관계>

- ⇒ 누수 및 냉방시설 보수는 2026년 하반기 추진 예정이며, 전시관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- ⇒ 목포시는 전시·체험 콘텐츠 개선을 위해 총 5억 원(특별시비 2.5억원, 시비 2.5억 원) 규모의 전환사업(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지원) 수요조사서를 특별시에 제출('26. 6.)하였으며, 2027년 공모 신청 예정임
- ➡ 목포시는 기념관을 방치하지 않고 시설보수 및 전시 콘텐츠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, ‘기념관을 방치하고 있다’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※ 기념관은 시민과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
➡ 2023년 134,579명, 2024년 156,806명, 2025년 152,449명